



[협회소식]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10년 제14기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 물류표준화 수준 질적 향상에 총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부페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국가 물류표준화는 물론 아시아 물류표준화 수준의 질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협회는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수지결산, 2010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정태원 신임 이사(상임)를 선임했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는 1년전 설정한 운영 목표대로 긴축운영과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유닛로드시스템 보급확산’이라는 협회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올해도 국가 물류표준화 수준의 실적 향상은 물론 아시아 역내 물류표준화를 주도하게 될 유닛로드 전문인력 양성에 힘 쏟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도 물류표준 인증제도 활성화 등 정부의 물류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해 나가는 한편 표준파렛트와 표준 컨테이너의 보급 및 일관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로 제4회 째를 맞는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연수교육’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아시아 역내 물류표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인력양성에 나선다.

이밖에도 오는 5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간 리터너블 파렛트에 대한 무관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 제5회 APSF정기총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최 예정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아시아의 물류선진화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는 2006년 6월 도쿄에서 창립된 아시아 최초, 유일의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민간국제기구로서 회원국간 파렛트와 물류기기 표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사업, 회원국들의 표준규격 채택 활성화 지원사업, 파렛트와 관련기기의 표준화 추진에 대한 전략과 기술개발 지원사업, 물류기기 표준화와 시스템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확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파렛트를 통한 아시아의 물류 통합과 선진화를 위하여 지난 4년간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를 창설, 회장국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총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6월 10일 개최 될 예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의 대표가 참석한다.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는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완성과 아시아 물류 선진화를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물류선진화 기술을 전달하고자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국가들을 찾아가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물류선진 기술을 전수하며 또한 APSF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아시아 물류선진화 통합화를 이루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완성과 이로 인한 아시아 역내 무역증진, 기업의 물류비 효율화 개선 등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제4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 교육실시 예정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교육

금년이 벌써 4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 교육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시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 물류관련 산업표준 담당자 및 물류관련 업계·학계에서 선별된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4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물류시스템을 전수 교육하여 훗날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2007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매년 40여명씩 교육하여 작년 2009년 기준으로 120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들은 자국의 핵심 물류인재로 성장하여 훗날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기초가 될 중요한 인재들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본 교육 사업을 계속 발전 시행하여 아시아 각국의 물류발전과 더불어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이라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춘계 포럼

성공적 이행과 발전을 위한 춘계 포럼 열려

지난 4월 13일 오후3시부터 마포 가든 호텔에서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후원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춘계 포럼”이 열렸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본 춘계 포럼의 후원과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가입 단체로서 본 포럼에 참가하였다.

“성공적 이행과 발전을 위한 춘계 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포럼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의 한태영 차장의 “재활용 실적 이행성과 점검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를 포함한 자발적 협약 가입단체의 “2010년도 협약단계별 운영계획” 발표를 하였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자발적 협약의 발전 방향과 운영 방향 등을 자유롭게 토의 하며 약 3시간의 춘계 포럼을 마무리 지었다.

처음 협약 시행 당시는 생소한 시스템에 기업 및 단체들이 다소 혼란을 겪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시스템은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용 및 재활용 비용 문제 해결 등을 도모하고 있다.